



■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미래형 대입제도를 모색하는 연속토론회 4차 예고보도(2019.4.30.)

5/2(목), 새로운 대입체제로서 'IB' 도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5월 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근본적인 미래형 대입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7차 연속토론회 중 네 번째로 새로운 대입체제로서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국제 바칼로레아)' 도입이 타당한가를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이 이처럼 미래형 새 대입제도를 모색함에 있어서 'IB' 도입을 주제로 삼고 세 차례의 토론회와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IB' 도입에 대한 총평을 사회적으로 발표하려는 이유는 'IB'가 평가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시 위주의 지식암기 교육, 5지선다형 문제풀이 중심 평가로는 창의적 사고증진이나 미래 핵심 역량 함양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에 뜻있는 이들마다 유럽과 같이 학교와 국가시험을 논술형으로 바꾸자고 제언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국과 같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평가의 주체인 교사에 대한 불신 시비가 끊이지 않는 국가에서 논술형 평가는 공허하고 이상주의적 주장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IB는 논술형 평가를 도입해 평가 혁신을 이루면서도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대구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은 IB의 한글화 번역에 대해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국제 바칼로레아 본부)와 합의에 성공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교육에 IB를 도입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타 시도교육청도 IB 도입을 검토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IB 도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많으며, IB 도입과정에서 많은 마찰음도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IB 도입이 과연 대한민국의 낡은 평가체제를 혁신하면서 새로운 대입제도를 견인할 수 있는 타당

한 제도인지에 대한 평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이 평가는 대단히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교육걱정이 IB의 타당성 평가에 나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앞서 진행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IB 도입이 갖는 의의와 기대효과, 제기되는 문제점을 상당 부분 정리했습니다. 4월 11일에 진행된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수능으로 대표되는 객관식 중심의 시험체제와 이를 대비하기 위한 수업으로는 학생들의 미래역량 강화할 수 없으므로 '지식을 집어넣는 교육'에서 논서술형 중심의 '꺼내는 교육'과 평가로 전환하면서도 채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IB의 도입은 우리 교육현실에 접목되었을 때 알레르기 반응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긍정적일 것이라는 평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토론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과 IB 도입만 가지고는 교육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는 효용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면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4월 18일에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의 평가혁신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IB를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IB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대구교육청 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IB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도입 과정과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고, 대구교육청을 중심으로 하여 도입을 준비하는 측의 준비과정과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 토론회를 통해 IB의 철학과 평가체제에 대해 좀 더 명확한 분석과 도입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IB에서 필요한 교사의 역량과 역할에 대한 정확한 확인 등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차회에 걸친 토론회와 자체 조사를 통해 IB의 도입은 지금의 진행과정보다 더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IB와 관련된 세 번째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IB의 실질적인 교육목적과 IBDP의 교육과정, △IB 프로그램의 핵심인 교사의 역량 강화 방안, △IB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효용성, △IB 도입과 관련된 법률적, 행정적 과제** 등을 명정하게 검토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나라에서 IB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야 하는 사회적 합의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형 새 대입제도를 모색하는 토론회의 주제 중 하나인 'IB' 도입에 대해 논의하는 마지막 토론회입니다. 이 시간은 IB란 무엇이고, 이 제도를 도입해 알레르기 반응 없이 대한민국의 평가혁신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과 의문을 갖고 바라보시는 분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답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체적인 연구조사를 통해 토론의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거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최종적으로 IB 도입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 최대한 총평을 내릴 수 있는 수준의 자료를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향후 사교육걱정은 토론회에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히 내외부 논의와 추가 조사를 마친 후 IB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교착 상태의 한국교육을 바꾸어낼 수 있는 근본적 대입 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3토론회 : 'IB' 도입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일 시 : 2019. 5. 2(목) 오후 2시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주 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일시	토론회명		■발제 □토론(가나다순)
1차 3/21(목) 오후 6시 30분	'국민통합입시'를 탐색한다 -서울대 100% 지역균형선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기숙(이화여대 교수) <input type="checkbox"/> 구분창(본 단체 정책국장) <input type="checkbox"/> 백선숙(학부모) <input type="checkbox"/> 이기정(구암고 교사) <input type="checkbox"/> 이성대(신안산대 교수)
2차 4/11(목) 오후 3시	5지선다 수능에서 논술형 국가시험으로	"IB는 한국의 낡은 평가 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해정(교육과학연구원 소장) <input type="checkbox"/> 김진우(세종과고 교사) <input type="checkbox"/> 이성대(신안산대 교수) <input type="checkbox"/> 전대원(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위원) <input type="checkbox"/> 전정원(전안장논술학원 원장)
3차 4/18(목) 오후 2시		"IB 추진 : 현재 정책 도입은 어 디까지 왔고 과제는 무엇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동진(본 단체 책임연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윤 준(대구교육청 장학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해정(교육과학연구원 소장) <input type="checkbox"/> 우종수(DGIST·전포스교육재단 이사장) <input type="checkbox"/> 전정원(참교육연구소 소장)
4차 5/2(목) 오후 2시		"IB 도입의 타당성을 평가한 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동진(본 단체 책임연구원) <input type="checkbox"/> 고영실(제주교육청 장학사) <input type="checkbox"/>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input type="checkbox"/> 신성호(참교육연구소 연구위원) <input type="checkbox"/> 윤 준(대구교육청 장학사) <input type="checkbox"/> 이해정(교육과학연구원 소장)
5차 5/2 오후 2시	'대학입학보장제'의 필요성을 점검한다		※5~7차 토론회의 일정을 단체 사정 상 연기합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참석 자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공지하겠습 니다.
6차 5/2 오후 2시	'대학입학보장제' 안착을 위한 조건과 과제		
7차 5/2 오후 2시	종합적 미래 지향적 대입제도를 제시한다		

2019. 4 30.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책임연구원 신동진(02-797-4044/내선번호 502)